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51호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논평

'출마선언인가, 변명인가' 체육시민연대, '3선 도전' 이기흥 정면 비판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스포츠대통령은 누구④]

체육회장 선거까지 약 보름... 단일화 정말 끝났을까

김진수 스포츠월드 기자

도전장을 던진 후보는 총 6명

'체육 대통령' 경쟁 본격 돌입... 각 후보 공약 키워드는?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취재 그 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가혹행위 피해자의 큰 울림, 체육계 전반에 뿌리 내리길

김민규 스포츠서울 기자

문체부, 배드민턴協 후속 조치 발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1개월내 이행해야"

송석주 이투데이 기자

최소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상 나오야 한다는 지적

이병철 전 회장 자격정지 8개월.. "숨방망이 처벌"

박주연 제주MBC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체육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연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널리 퍼지고,
체육을 통해 소통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체육시민연대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체육,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체육시민연대

'출마선언인가, 변명인가' 체육시민연대, '3선 도전' 이기흥 정면 비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체육시민단체가 비판 입장을 냈다.

체육시민연대는 24일 “대한체육회장 후보 이기흥, 출마 선언인가, 변명인가”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체육시민연대는 “이기흥의 출마 선언과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최근 연이어 연임 출마를 선언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떠올랐다”며 “국민들의 퇴진 요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하나같이 명예회복을 부르짖으며, 연임만이 명예회복의 길임을 자처하는 체육계 리더들의 그릇된 인식은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기흥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차기 회장 추천을 거부하고, 이기흥 본인이 ‘아무도 못 건드릴’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이기흥 자신은 어떤 권한을 가진 자이길래 차기 회장을 쥐락펴락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들이 추천하면 체육인들의 민의와 관계없이 회장이 되더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그들이 체육계를 얼마나 사유화하거나 그리하려고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이기흥은 출마 선언에서 그동안 자신의 치적이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지도자처우 개선, 협회 행정의 정상화에 수많은 일을 했다며 일일이 나열했다”며 “그의 발언에서 현장의 땀흘린 지도자나 선수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은 언급조차 없었고, 모두 자신이 해낸 일인양 치장하기 바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 모든 일은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성과를 훌쩍 뛰어넘어 당황했던 파리올림픽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이 의도하고 실행한 체육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이뤄낸 성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체육시민연대는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재출마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회장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느라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 하루하루 굶아가는 풀뿌리 체육의 현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시대 리더십과 새로운 세대들의 갈등, 체육회 사유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잘 마련해 놓은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으로 들어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체육시민연대가 발표한 논평 전문.

논평:대한체육회장 후보 이기흥, 출마 선언인가, 변명인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등록을 하루 앞두고, 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은 수많은 기자 앞에서 차기 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물러나는 것은 현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차기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물러날 생각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자신을 꿈쩍 못하게 코너로 모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자신이 계획하던 체육 발전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기흥의 출마 선언과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최근 연이어 연임 출마를 선언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떠올랐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하나같이 명예회복을 부르짖으며, 연임만이 명예회복의 길임을 자처하는 체육계 리더들의 그릇된 인식은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 장 계속

또 이기흥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차기 회장 추천을 거부하고, 이기흥 본인이 '아무도 못 건드릴' 후보를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도대체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이기흥 자신은 어떤 권한을 가진 자이길래 차기 회장을 쥐락펴락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추천하면 체육인들의 민의와 관계없이 회장이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그들이 체육계를 얼마나 사유화하거나 그리하려고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기흥은 출마 선언에서 그동안 자신의 치적이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지도자처우 개선, 협회 행정의 정상화에 수많은 일을 했으며 일일이 나열하였다. 그의 발언에서 현장의 땀흘린 지도자나 선수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은 언급조차 없었고, 모두 자신이 해낸 일인양 치장하기 바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성과를 훌쩍 뛰어넘어 당황했던 파리올림픽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이 의도하고 실행한 체육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기흥, 그가 한 일은 그저 IOC 위원 셀프추천, 회장 연임규정의 개정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악과 연임 승인, 유력 인사들에 대한 정치력 발휘, 사석에서 국회의원 험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의 간섭없이 누리고 싶은 독립성 강조, 즉 개인의 영달과 조직사유화를 위한 노력뿐이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스포츠위원회도 스포츠기본법에 명시된 총리실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이 판을 짠 국가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간섭을 없애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뱉은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스포츠 개혁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의 증장기적 체육의 발전, 아니 생존을 위한 거시적인 감각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시도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직접 교부 문제도 “나중에 정산이 안될 것”이라는 너스레를 떨며, 결국 체육회에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그가 얼마나 이 사회의 시스템을 경시하는지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당선 후 기소에도 재판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뻔뻔한 발언, 체육회 노조의 퇴진 요구에 “100% 이해”한다며, 올림픽 성과에도 온갖 감사와 조사에 시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는 내로남불, IOC 위원 재선을 위한 세세한 계획을 다 밝히면서도 사심이 없다는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재출마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회장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느라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 하루하루 굶아가는 풀뿌리 체육의 현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시대 리더십과 새로운 세대들의 갈등, 체육회 사유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잘 마련해 놓은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으로 들어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스포츠 대통령은 누구④] 체육회장 선거까지 약 보름... 단일화 정말 끝났을까

‘한국 체육의 개혁을 위한 결단이나, 기탁금 7000만원이나.’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은 끝났지만, 단일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따라야 가능하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가 결정났다.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반(反) 이기흥’ 후보의 대대적인 단일화는 실패했다. 출마를 선언했던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지지선언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단일화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투표일인 내년 1월14일전까지 사퇴와 지지선언이 이뤄진다면 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일화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후보는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뿐이다. 그는 “체육회가 필요로 하는 회장으로 뭉칠 수 있다면 단일화해야 한다.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후보들은 단일화에 회의적이다.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기도 했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단일화를 추진했던 분들에게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 그 방식에서 후보들과의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단일화에만 집중하면 체육인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애초부터 단일화에 반대했다.

단일화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바로 기탁금 7000만원이다. 후보 등록을 한 이상 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후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후보에서 사퇴하면 후보 등록을 위해 납부한 기탁금 7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기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선인이 된 경우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밖에 없다.

실제 2021년 제41대 체육회장 선거 당시에도 단일화 이슈가 나타났다. 당시 이 회장이 과반에 가까운 46.3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강신욱 후보가 25.68%, 이종걸 후보가 21.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 이 회장의 당선을 막지 못한 이들은 선거에서 실패했지만, 득표율 20%를 넘기면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체육계 관계자는 “단일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기탁금처럼 부가적인 요인으로 인해 단일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을 역임했던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다들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며 “후보 6명의 난립 구도가 계속된다면 그전 임기 8년 동안 텃밭을 잘 가꿔놓은 이기흥 후보를 이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육 대통령' 경쟁 본격 돌입... 각 후보 공약 키워드는?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2024.12.30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29일 대학체육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던 지난 25일까지 도전장을 던진 후보는 총 6명이다.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추첨을 통해 1번 이기흥, 2번 김용주, 3번 유승민, 4번 강태선, 5번 오주영, 6번 강신욱으로 결정됐다. 이들 6명의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 선거일인 내년 1월 14일 전날까지 체육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부지런히 땀 예정이다.

이기흥 후보는 '변화'와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변화, 체육인과 완성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는 "체육회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있는데, 도외시하기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권력 기관이 다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갈 수 없었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체육계에선 '변화'의 대상이 돼야 할 이기흥 후보가 '변화를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의혹을 얼마나 해소할 지가 선거전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출신의 김용주 후보는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를 두루 거친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청' 신설, 시군구체육회 예산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회장을 겨냥한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 금지' 공약이 눈에 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대한탁구협회장을 역임한 유승민 후보는 '대한민국 체육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IOC선수위원 선거 때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의) 왕하오와 결승전 때도 모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 이겼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 서울시체육회장이자 BYN블랙야크그룹을 이끌고 있는 강태선 후보는 "스포츠 대통령 아닌 '경영인'이 되겠다"며 "'체육회를 필요로 하는 회장'이 아니라, '체육회가 필요로 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39살로 6명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오주영 후보는 '체육에 빛진 게 없는 깨끗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젊음과 패기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체육행정 혁신,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 주요 공약이다. 최연소 후보답게 짧은 총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쇼츠(짧은 영상)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키인 출신으로 단국대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길러낸 강신욱 후보는 풍부한 경험과 관록이 강점으로 내세운다. 41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뒤 지난 4년간 바닥 표심을 다져온 자산을 바탕으로 체육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 그는 "비정상인 된 체육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한 뒤 강 후보 선거 캠프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은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의 지원도 강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다.

한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다. 회원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각 지역, 종목, 직군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선거인단 2244명이 투표에 참가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가혹행위 피해자의 큰 울림, 체육계 전반에 부리 내리길

“사무국 직원들은 회원 단체에 봉사하는 노예가 아니다. 엄연한 직장이고, ‘삶의 터전’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최근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피해 직원의 눈물 질은 호소다. 회원(선수)들의 단체인 KPGA에서 비회원인 사무국 직원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KPGA 수장인 김원섭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김 회장은 ‘가혹행위’ 피해 직원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가해자 징계와 사과문을 내놓으며 ‘논란 막기’에 급급했다.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렸다. 갈수록 가관이었다.

약 1년간 지속된 한 임원의 욕설·폭언·협박 등 가혹행위는 피해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란 생각까지 몰고 갔다. 피해자가 11월 18일 이 같은 사실을 KPGA에 신고한 이후에도 해당 임원의 2차 가해가 버젓이 자행됐다.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혀질 수도 있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언론에 보도된 후 일주일만 지나서야 피해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을 불러 고개 숙여 사과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한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김 회장의 ‘진정성’에 물음표가 생긴다. 왜 조속한 사과와 지원책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지난 23일 KPGA는 협회명으로 형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에 대한 사과나 지원책이 빠진 ‘빈껍데기’였다. 해당 사건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접수되며 논란이 더 커지자, 김 회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사과와 사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가해 임원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 처음 신고됐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임원의 폭언·욕설이 자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KPGA 한 직원은 “지난해 11월 23일 김원섭 회장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에도 해당 임원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몇몇 직원들이 해당 임원의 ‘직원들 대상으로 빈번한 욕설 및 폭언, 괴롭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진술했지만 당시 인수위원(상당 수가 현 경영진)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초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마지 못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지원 방안이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내놓은 것도 아니다. ‘빛 좋은 개살구’격이다.

이는 단순히 KPGA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고질병이다. 스포츠업계 종사자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체육 단체장들의 부패, 비위 등이 난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외친 체육계 개혁과 쇄신은 그저 말뿐인 허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번 KPGA ‘가혹행위’ 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가혹행위’가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폭언·욕설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KPGA 가혹행위 사건이 스포츠단체의 위계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1개월내 이행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해임을 1개월 내에 이행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고, 공정성 논란이 됐던 복식 국가 대표 선발 방식 역시 개선했다.

30일 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 전반을 살핀 지난 10월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문제가 됐던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개선했다. 경기력 70%, 평가위원 평가점수 30%로 선발하는 현행 제도가 실력보다는 운이 크게 작용하고, 불공정한 선발을 가능케 한다는 문제의식이 선수들 사이에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했다.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됐다.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의 로고를 노출했다.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 원도 지난달 30일 열린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이 밖에도 △외출·외박 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문체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특단 조치 추진"

한편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은 개선이 진행 중이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선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협회와 후원사가 협의 중이다.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약 1억1500만 원)도 해당연도 활동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따라,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경기력 성과비로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선수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협회는 김택규 회장이 협회 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른바 '페이백'을 받아 임의로 쓴 행위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와 임원 성공보수 지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문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회장은 라켓·셔틀콕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후 약 1억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받았는데, 협회는 이렇게 받은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철 전 회장 자격정지 8개월.. "솜방망이 처벌"

◀ 앵커 ▶

제주MBC 연속 보도로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에게 자격 정지 8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직원들은 징계를 결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이 전 회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일을 시키고, 주말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해 갑질 논란을 불렀던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포럼센터 조사 결과 12건과 11건씩 직장내 괴롭힘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특히,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을 손녀가 이용하도록 선점한 의혹도 회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문체부는 폭력과 인권침해, 괴롭힘을 사유로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제주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전 회장에게 대해 인권침해와 괴롭힘으로 자격 정지 8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상습적인 언어 폭력과 인권 침해의 경우 각각 자격정지 1년 이상인데다 상습적인 괴롭힘도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8명은 모두 이병철 전 회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이미 자진 사퇴한 이 회장에게 효력이 없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피해 직원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구성한 위원들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이 전 회장 징계와 관련해 제주도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철 전 회장은 반론권 보장을 위한 수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경남태권도협 A모 회장 당선인, 창녕태권회장 선거 특정인 지지 강요 논란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079>

[제주항공 참사] 체육회장 후보들, 참사애도 행렬에 동참(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0036801007?input=1195m>

송파구, 서울 자치구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3001039927301001>

체육회장 후보 강신욱 선거 캠프 개소... "체육회 수장 바꾸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8023300007?input=1195m>

'스마트스코어' 키워낸 541억 韓 스포츠편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949121>

'체육계 부조리 타파' 금빛 스매시...희망을 봤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050005>

체육인 지혜로 조성한 '내일이 빛나는 광주 체육'

<http://www.jnilbo.com/75788654878>

국민 69.5%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 반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4_0003009166

선거 캠프 연 강신욱 체육회장 후보 "변화의 시작" 선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91351108830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